

## 제 67 강

#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때

■ 성경본문 베드로전서 1:1-5:14, 베드로후서 1:1-3:18 ■

### 프렐류드(Prelude)



지중해

오늘 우리는 순교하기 전 로마에서 베드로가 쓴 것으로 전해오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와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소아시아(지금의 터키)에 흩어져있는 일명 ‘디아스포라’(Diaspora) 그리스도교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포악한 로마 제국의 핍박은 이미 소아시아 지역을 피로 물들이고 있었으며, 그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위로하고 신앙의 격려를 보내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교회 안에 침투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베후 3:4)라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농락하는 이단에 대한 경고와 변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임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 I. 주요 내용

1. 하나님의 백성(베드로전서 1:3-2:10)
2.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베드로전서 2:11-4:6)
3.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베드로후서 3:1-18)

## II. 시대적 배경

주후(AD) 64년은 로마 황제 네로(Nero)가 자신이 저지른 로마 시(市), 대(大)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떠넘기고, 그리스도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한 박해는 68년까지 4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전파되어 있었으며, 특히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Asia Minor-지금의 터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회들은 크게 부흥하고 있었고, 뜨겁고 열심히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박해와 핍박도 컸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주후 64년 로마에 도착한 베드로는 사도로서, 로마 교회 감독으로서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 후서입니다.

## III. 말씀과 해석

### 1. 하나님의 백성(베드로전서 1:3-2:10)

베드로 자신도 십자가의 예수를 배신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베드로는 과감한 증언자가 되었

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행 2:32)를 고백한 베드로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벧전 1:3).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벧전 2:9)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새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참조: 출 19:6).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내가(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벧전 1:15-16) 여기서 거룩한 행실은 뜨거운 형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 2.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베드로전서 2:11-4:6)

베드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실천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 (1)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벧전 1:17, 2:11).
- (2) 제도나 왕 혹은 총독에게도 복종하고(벧전 2:13)
- (3) 주인들에 대해 사환(종)들은 순종하고(벧전 2:10)
- (4) 아내의 남편 사랑(벧전 3:1)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지막 때를 사는 삶으로 요약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의 삶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대접하고, 받은 은사를 선한 청지기같이 사용하며,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며,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는 삶입니다(벧전 4:7-11).

지금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몸에 지니고 뜨겁게 사랑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얻는다”고 격려하였습니다(벧전 5:4). 이 충언은 분명 역설이고 이율배반 같은 격려였습니다. 죽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설적인 권면은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는 로마 병정을 향해 용서를 간구하신 주님의 기도에서 온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 3.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베드로후서 3:1-18)

베드로전서를 보낸 지 얼마 후 디아스포라 교회에는 “조롱하는 자들”(벡후 3:3)이 침투하여 두 가지를 들고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농락하고 뒤흔들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주의 재림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벡후 3:4)라는 말로 고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희롱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마지막 소망인 주의 재림을 부정함으로 믿음의 뿌리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습니다(벡후 3:3). 이때 재림의 부정과 부도덕의 유혹은 그리스도인들을 큰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시간을 놓고 그의 유명한 종말론을 풀어갔습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벡후 3:8)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때를 논증하였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는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때라 했습니다. 인간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의 때입니다(벡후 3:8-9).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벡후 3:10). 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날이 지난 후 그리스도인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합니다(벡전 3:13).

## IV. 성찰과 나눔

1.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는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가말리엘 문하 출신인 바울보다는 덜 지성적이고 덜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올법’ 문제로 베드로와 바울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배신하고, 바울은 스테반이 죽는 순교 자리에 있

었습니다. 그는 간접 살인자였습니다.

2.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변화시킨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하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죽음을 겪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두 사람은 공히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3. 예수의 부활하심! 이 세상 역사에서 죽음과 대결하여 죽음을 겪고 다시 사신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무후무한 부활하심! 이 예수의 부활은 역사를 바꾸고, 교회를 세웠으며, 죽음 다음에 죽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이 세상 모든 것에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4. 베드로전, 후서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의 신앙고백이고 교훈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베드로는 하나님의 때를 모든 사람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사랑과 참으심의 때로 보고 이때를 증언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계산되지도 않는 사랑과 인내를 담은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인은 이때를 기다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증언자요 나그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